



11.12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09 | Vol.11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뜻심과 인내로

오늘을 있게 한 여러분의 노력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지만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선물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한 올 한 올 직접 뜬 포근한 목도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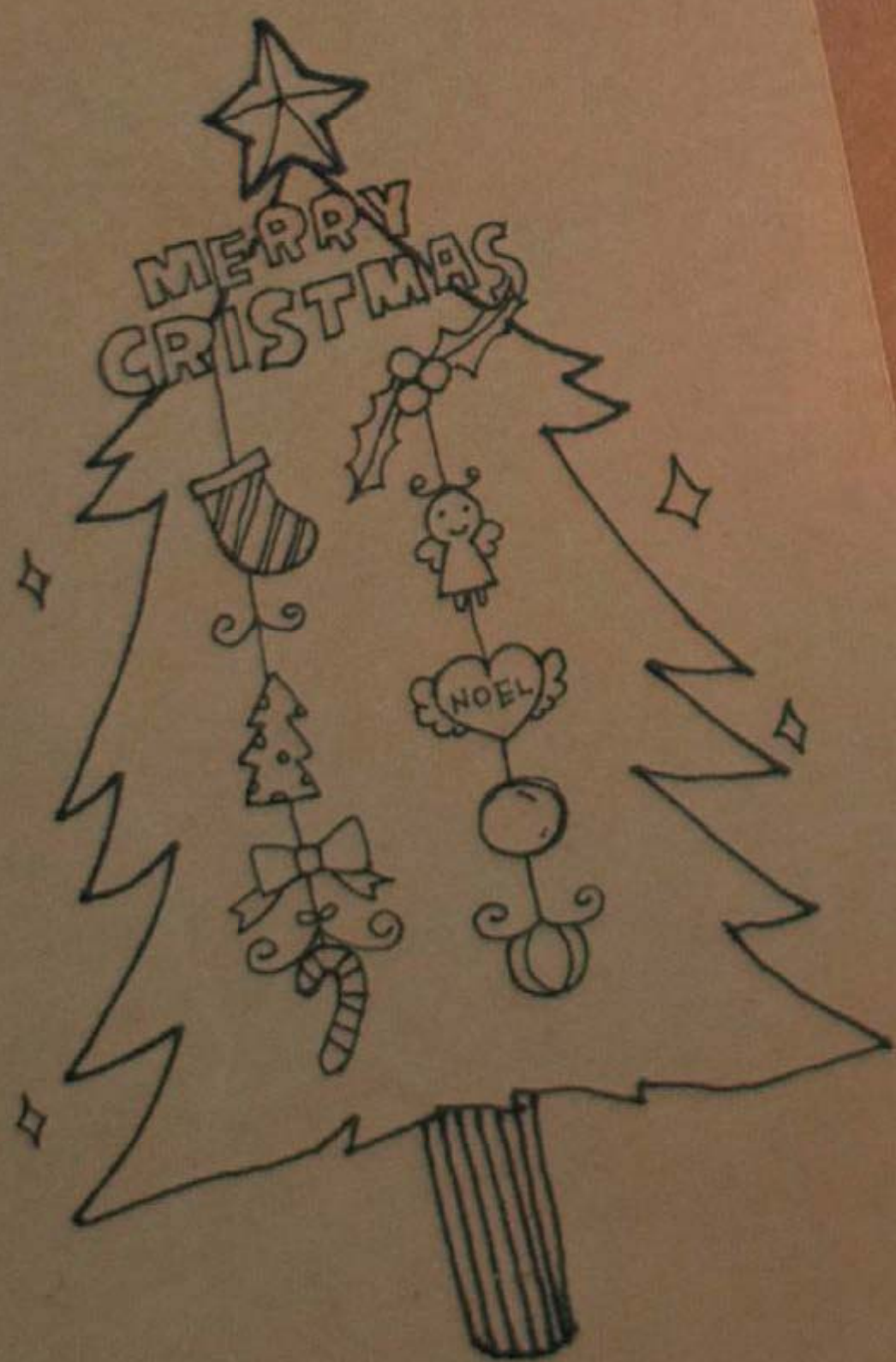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양초도 준비했어요.

손수 종이를 골라 포장을 하고 예쁘게 리본으로 묶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 작은 선물이

모두가 행복한 연말을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11 | 12 2009 | Vol.11



Chairman message | 부패척결과 고충해결이 '중도실용' 04

특집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ACRC Issue | 국민들의 고충을 찾아 이동신문고가 떴다! 08

ACRC Focus | 대한민국 민원해결 1번지, 국민신문고 12

소통

해외 청렴 리포트 | 합리적인 규제와 예방 교육으로 이루어진 독일의 반부패 정책 16

국민생활공감

솔로몬의 선택 | 정답선정에 혼란을 초래한 문제,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

고충처리 카페 | 울주군 구영택지지구 미활용 학교부지 민원해결 22

민원실 풍경 | 서민 두 번 울리는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무적차량), 이제 그만! 24

기분 좋은 편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26

기분 좋은 만남 | 대화는 민원인 웃음을 찾아주는 비결 28

청렴예찬 | 4회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신용보증기금 30

아름다운 약속 | 경조사, 직무관련자에게 알리지 마세요! 33

여유

세상사는 풍경 | 절름발이 세상을 한 땀, 한 땀 꿰매다! 36

여행의 재발견 | 곳곳한 선비문화의 고장 밀양 38

문화로 보는 세상 |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특별시사람들> 42

돈 버는 방법 |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로, 보증자리주택의 모든 것 44

생활법률110 | 신용불량자여, 개인회생에 주목하라! 46

ACRC NEWS 48

국민 참여 마당 50



부패척결과 고충해결이 ‘중도실용’

9월 30일 이재오 위원장 제2기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9월 30일 이재오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권익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취임사를 통해 “공직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는 한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 고통 대부분이 공직자의 비리에서 출발한다”면서 “국민권익위가 서민을 위해 부패를 척결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중도실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공직기강의 확립과 부패 척결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9월 30일 있었던 이재오 위원장의 취임사를 소개한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이 나라가 후세에 “이명박 정부 시대에 공직자들이 가장 깨끗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저는 1년 가까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브릭스라고 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 나라들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도 적고 자원이나 땅도 적은데다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그들의 사회보다 부정과 부패, 각종 비리를 없앨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원이나 국토, 인구로는 그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국가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국가경쟁력이고, 이 국가경쟁력이 미래에 한국을 국제사회에 우뚝 세울 수 있게 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어떠한 권력형 비리도 받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토착비리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근절하는 척하고 사건 몇 개 터뜨려서 신문에 몇 번 나고 몇 사람 감옥 가는 걸로 끝나는 토착비리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셋째는 각종 크고 작은 공직자 비리입니다. 공직자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는 한 우리는 정의로운 국가와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비리가 공직자와 연관되어 있고, 국민 고통의 대부분이 공직자 비리에서 출발합니다.

넷째로는 국민 고충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공무원은 민원인이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건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소리를 먼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권익위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국민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작은 목소리로 이런 일들을 실천해주십시오.

위원장인 저는 국민을 위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방패막이 되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외압으로부터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살살이 누벼서 비리가 생길 수 있는,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고치고, 조사해야 합니다. 어떤 외압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일하고,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언론의 힘을 빌리면 됩니다.

국민권익위 600명 직원 전부가 조선시대 ‘어사 박문수’가 된다는 기분으로 일해주십시오. 고전 『춘향전』의 마지막 부분에 탐관오리 때문에 억울했던 춘향이 어사출두로 가슴 후련해지는 대목을 읽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정부에서 할 일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명박 정부가 후대 국민권익위 덕분에 빛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제 취임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국민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작은 목소리로 국민권익을 실천해주십시오. 위원장인 저는 국민을 위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방패막이 되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외압으로부터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조선 태종 시절, 백성들은 임금에게 직접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궐 밖 성문에 달려 있는 '신문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신문고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이동신문고'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고충민원 신고는 물론 부패신고, 행정심판 신청 등 다양한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받는 온라인 창구라면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의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농·어촌 지역을 방문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오프라인 민원 창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신문고와 이동신문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08 ACRC Issue 국민들의 고충을 찾아 이동신문고가 떴다!

*12 ACRC Focus 대한민국 민원해결 1번지, 국민신문고



국민들의 고충을 찾아 이동신문고가 떴다!

1 Day

밀양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저는 오늘 이동신문고팀의 일원으로 왔으며, 집단민원은 제가 직접 상담하고 개별민원은 조사관들이 하겠습니다”라는 이재오 위원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곳은 밀양시청 5층.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조사관들을 찾아 온 지역민들로 시끌벅적하다.

10월 21일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의 첫 집단민원은 밀양시의 핫이슈인 ‘765KV송전철탑 건설문제’. 주민들은 ‘송전철탑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며 선로 변경이나 사업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이동신문고팀은 현장을 방문한 후 “여러 자치단체가 관련 되어 있는 만큼 한국전력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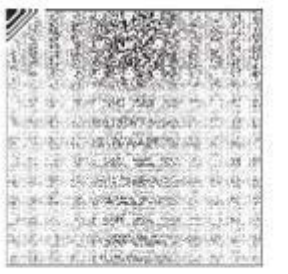
한 쪽에서 집단민원상담을 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개별민원 상담이 이루어졌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상담을 멈추지 않는 조사관을 민원인 어르신이 일으켜 세운다. “조사관 양반, 밥 먹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괜찮습니다. 점심은 나중에

먹으면 되죠” 점심시간조차 잊은 조사관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하나의 민원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조사관이기에 민원상담에 박차를 가한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이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관들은 소외 계층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나섰다.

조사관들은 밀양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한 뒤 아버지와 초등학교 2학년 쌍둥이 남매가 사는 가정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작은 손으로 고구마껍질을 벗겨내어 옆에 앉은 조사관의 손에 쥐어준 아이는 시력을 점점 잃고 있어 주변사람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를 본 이 위원장은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언제나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야 해”라고 격려해주었다. 또 아이의 아버지가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과 월 40시간 보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밀양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초동농공단지와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밀양 지역민들의 애환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조사관들이 직접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이동신문고가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남 밀양시와 경북 청도, 경산시에서 운영되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동신문고 운영에 맞추어 해당지역을 방문, 지역 집단민원을 상담했다. 이 위원장은 오후에는 지역에 위치한 공단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독거노인과 같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기도 했다.

2 Day

즉석 조정기구를 설치해 집단민원을 해결하다!

10월 22일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가 방문한 곳은 인구 4만의 청도군. 아침 일찍 청도군청에 도착한 조사관들을 맞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민원인들.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새벽같이 왔어(하하)” 기다리는 민원인들로 조사관들의 손발은 더 빨라진다. “어르신, 먼저 상담신청서를 쓰셔야 해요”, “그래? 돋보기를 안 가져왔는데...”, “불러주시면 제가 쓸게요!”라며 조사관들은 이동신문고 현장이 낯선 어르신들을 도우며 상담 진행을 원활히 했다.

장애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이동신문고 현장으로 복귀중인 이 위원장 일행을 기다리는 민원인들. 플래카드까지 걸고 시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이동신문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정기구를 설치해 민원을 해결합니다”라며 즉석 조정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논란 끝에 군청측은 주민들을 위해 11월말까지 상수도과 가압장을 만들어 주기로 합의해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일정은 감천지로 온통 주황빛인 청도농협 공판장에서 시작됐다. “감이 풍년이네요. 장사는 잘 되나요?”라고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한 농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풍년이면 뭐해, 감 가격이 폭락해서 죽을 맛인데...” 이동신문고는 농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실제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많지는 않더라도 적정선의 예측 가능한 농가수익 보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사관들이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장애인 가정과 독거노인 할머니 댁. 이동신문고는 시력을 잃은 남편과 소아마비로 지체장애를 겪는 조선족 부인에게는 특수제작 된 좌식의자를, 홀로 계신 할머니께는 좌변기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청도군에 요청했다.





3 Day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우리 아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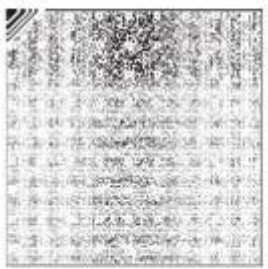
10월 23일 이른 아침 자인공설재래시장에서 출발한 이동신문고는 마지막 집단 민원 상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산시청으로 출발했다. 그곳에서 만난 집단민원은 경산시청과 중소기업청이 대형할인매장을 지으면 하양 재래시장과 읍내 상권이 위축된다고 지역민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에 이동신문고는 면담 후 경산시 관계자에게 '주민들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인 만큼 시에서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달 운영되는 이동신문고가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농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다. 캄보디아에서 농촌총각에게 시집온 부인과 아이가 이동신문고를 반갑게 맞이한다. 이 위원장이 손을 내밀자 아이는 마치 자기 할아버지인 것처럼 덩석 안겨 주위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이 위원장은 떠나기 전 부인에게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110 콜센터'로 전화하세요"라며 격려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주공 임대주택단지를 찾아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 위원장은 "2박 3일 동안 30곳의 현장을 방문하며 느낀 것인데 농촌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농가수익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노령화입니다"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과 농공단지, 일반 지역민을 위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고마워요, 이동신문고!

지난 10월 21일 밀양시 시청에서 이동신문고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밀양 시민들이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민원을 들고 밀양시 청 5층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과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마음이 너무 가볍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밀양 시민들에게서 국민권익위에 바라는 점을 들어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양 군(67세, 밀양시 가곡동)

밀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열린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오늘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
률상담을 하러 왔는데 조사관이 어찌나 차근차근 잘 설명해주는지.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는 않습니다. 다만, 힘없는 이 늙은이의 억울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조사관에게 마
음을 털어놓으니, 그동안 쌓인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속 시원합니다.

“시골 구석구석까지 국민권익위원회를 알려주세요”

김 무 년(72세, 밀양시 초동면)

동네 면사무소에 갔더니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온다며 가보라 하더라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나쁜 사람을 고발하려 하는데 뭘 알아야지. 이혼이 넘은 우리 부
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는 조사관이 어찌나 고맙던지. 왜 아무도 국민권익위가 있다는 걸 알
려주지 않았는지 몰라요. 시골 구석구석의 노인들까지도 서민의 힘이 되어주는 국민권익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TIP. 이동신문고가 궁금해요!



Q1 이동신문고는 무엇인가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상담제도로써, 국민권익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
원 신청이 어려운 도서·벽지,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에서 국민권익위의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법률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국민소
통 창구입니다.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즉석에서 처
리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정식민원으로 접수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해결하고 있습니다.

Q2 2009년 이동신문고의 성과는 어떠한가요?

올해 3월부터 매달 열린 이동신문고는 '09. 10월 현재까지 현장합의 172건, 고충민원접수 152건, 상담안
내 628건 등 총 952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이동신문고에
서도 경남 밀양 86건, 경북 청도 64건, 경북 경산 80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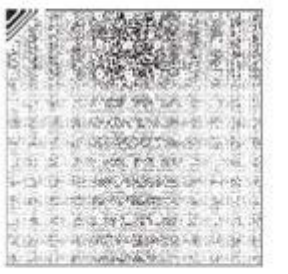


대한민국 민원해결 1번지, 국민신문고

체불된 임금을 못 받고 있을 때 혹은 갑자기 직장으로부터 퇴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어느 곳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 하지만 관련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전화 상담을 할 경우 담당자를 찾기 위해 낭비할 시간을 생각하면 문의 자체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 한 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국민신문고를 클릭하는 것이다. 국민신문고는 고충민원 제출은 물론 부패신고, 행정심판신청 등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터넷 민원 신청 창구'로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어디서나 이용가능하다. 편리한 삶, 억울함이 없는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자.

최근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국민신문고 이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올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전체 57만 7,844건, 일일 평균 1,901건(2008년 1,703건)이 접수되었다. 또한 민원처리 소요기간은 6.3일(2008년 6.9일)이며, 민원처리 만족율은 52.2%(2008년 51.2%)로 각각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 국민제안은 6만 9,714건이 접수되었다.

국민들의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대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신문고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따라잡기

1단계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가기 주소창에 www.epeople.go.kr 입력

2단계 민원 신청서 작성 성명과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와 주소, 결과통보방식을 결정한 뒤 민원제목과 내용 작성

3단계 민원처리기관 선택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정한 기관으로 민원 분류

4단계 민원 처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관련법령에 따라 각 소관 기관에서 민원 처리

5단계 완료!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결과통보방식(서신,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으로 통보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신종플루 예방접종 일정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건소 업무시간을 늘이는 것이 어떨까요?’ 와 같이 정부 기관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정책과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www.epeople.go.kr’ 즉, 국민신문고다.

우리는 공무원·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목격했을 때 또는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를 클릭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을 비롯해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과 사법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빠르고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때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민원신청을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문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대한민국 전 행정기관 중에서 민원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류되어 소관 기관의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 민원신청 서비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110만 명.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면 답답한 것은 외국인도 마찬가지.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한국어가 서툰 재외동포나 국제결혼 이주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가 아닌 자국어로 직접 정부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외국인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했다. 현재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어 전용 민원창구 개설 이후 '09. 10월 말까지 집계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559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대부분이 ‘비자와 여권 민원 같은 법무 분야’로 나타났다.



잠깐! 민원 신청 전, 동일한 민원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보세요!

사 례

운전면허증을 획득한 지 9년이 흘렀지만, 여태껏 운전을 해본 적 없는 장 씨. 그녀는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면허증을 보니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난 것이 아닌가.

그녀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한 질문을 찾아보았고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경찰청의 자세하고 친절하 답변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민원 검색서비스’를 통해 굳이 민원을 신청하지 않고서도 다른 민원인의 사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28일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과 ‘네이트(NATE)’에 정부민원 처리사례 약 2만 4,000건을 검색할 수 있게 한 ‘정부민원 검색서비스’를 개통했다.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 이 서비스는 개시 후 10월 말까지 다음(Daum)에서만 34만 1,700회나 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순항 중이다.

국민신문고 다음(Daum)·네이트(NATE)에 ‘민원 사례’ 2만 4천여 건 제공

- 다음(Daum) > Q&A 지식 > 사회, 문화 > 정부, 행정 > 국민신문고
- 네이트(NATE) > 지식 Q&A > 사회·시사·공공 > 국민신문고





通, 소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합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과자세트, 친구가 슬며시 건네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

시골 할머니께서 보내신 고구마 한 상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민권익위 전 직원은 내년 한 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16	해외 청렴 리포트
20	솔로몬의 선택
22	고충처리 카페
24	민원실 풍경
26	기분 좋은 편지
28	기분 좋은 만남
30	청렴예찬
33	아름다운 약속

합리적인 규제와 예방 교육으로 이루어진

독일의 반부패 정책





2



3



4

1. 유럽중부에 있는 독일은 행정구역이 16개주로 되어 있으며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다 2. 경찰공무원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철저한 반부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독일 베를린 변화가 깨끗한 길거리만큼이나 국민들의 반부패 의식도 강하다 4.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Germany



2008년 독일의 다국적 전기·전자기업인 지멘스(Siemens)가 해외에서 대규모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약 2억 유로(원화 약 3,47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전·현직 지멘스 간부 일곱 명이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는 전직 경영진의 퇴진, 2억 유로가 넘는 벌금, 부패와 연루된 직원 500여 명 해고 등 뼈 아픈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지멘스코리아의 팝(Michael Popp) 이사는 “비리 사건 이후로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재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9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4위에 올라 청렴한 국가임을 입증했는데, 이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프로이센의 깨끗한 관료주의 및 국민 모두가 부패척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2006년 독일판 ‘리더스 다이제스트’ 에서 독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패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독일 국민은 자국의 부패 정도는 보통 수준이며 가장 부패한 집단은 정치인으로, 그들은 언제라도 뇌물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의 배경에는 1999년에 있었던 헬무트 콜(Helmut Kohl) 전 연방총리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있다. 콜 전 연방총리가 기업에게 받은 기부금 210만 마르크(원화로 약 36억 원, 1982년과 1998년 사이에 독일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이 리히텐슈타인과 룩셈부르크에 비밀 계좌를 운용)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받은 것이다. 독일은 기업이나 부유층이 대규모 기부금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정당 재정의 투명성

규정을 「헌법」에 삽입했다. 독일 「헌법」 21조에 따르면 ‘정당은 정치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자신의 재정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콜 전 연방총리는 이 투명성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민의 썩늘한 시선을 뒤로한 채 정치권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은 다시 한 번 부패를 척결하고자 많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합리적인 규제로 부패 방지

독일은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적 차원’과 ‘예방적 차원’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규제적 차원은 말 그대로 부패가 적발됐을 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하고, 예방적 차원은 부패유발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적 차원으로는 연방정부가 1996년 12월 15일에 제출한 「반부패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1997년 8월 13일에 통과되었는데, 이 법안을 보면 뇌물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독일의 노력이 엿보인다.

이제까지 뇌물을 주고받을 때 ‘부정행위 혐의’, 다시 말해 ‘특정한 결과를 위해 부탁’ 하는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특히 구체적인 목적은 없지만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뇌물수수 행위가 인정됐을 경우 형벌과 벌금이 강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뇌물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할 수 있게 되었고, 공무원 부패와 민간부문의 부패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사라졌다.

부정부패는 예방이 가장 중요!

독일은 부패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독일 역시 부패를 신고한 제보자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익명의 제보자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독일철도회사(Deutsche Bahn)는 두 명의 변호사를 옴부즈만으로 고용하였고, 라인란트-팔츠주(州)에서는 변호사를 상담자로 고용하는 등 ‘외부인’에게 조직내부의 부패를 고백하게 하고 있다. 이는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제보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안심하고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독일은 부패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이들은 ‘반부패 행동규범’을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부패의 위험성이 높은 행정업무에 대해 알아야 하고 사전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상황별 대처방법도 익혀야 한다. 이들에 대한 모든 교육훈련과정에는 반드시 ‘부패예방’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부패예방 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방행정의 부패예방을 위한 연방정부가이드라인’이다. 연방정부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독일연방은행과 같은 공공기관과 협회, 재단,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의 민간단체이다. 연방정부가이드라인은 부패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있어 고전적이고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5. 독일 국민들은 독일의 부패 정도를 평균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중 정치인들이 가장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6. 독일 뮌헨의 신시청 앞,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7. 휴일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독일의 시장 모습 8. 경제윤리를 위한 독일 네트워크와 경제윤리센터를 세워 독일의 미래 청렴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콘스탄츠 대학 9. 헬무트 콜 전 연방총리. 그의 정치 비자금 사건으로 독일은 다시 한번 부패 척결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조직들은 연방정부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는 원칙들을 반영하여 부패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부패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행정업무라면 '다수의 감시 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사안에 다수의 인원 또는 다수의 조직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한 후 그 적절성을 평가한다.

또한 한 부서에서의 근속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근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그 근거를 기록해야 하며, 임원(공기업의 사장과 이사)을 선출할 시에는 선출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자보다는 전문가를, 인맥을 이용한 인물이 아닌 능력 있는 인물을 선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에는 행정업무의 성격이나 양을 불문하고 부패예방을 위한 부패예방담당관을 배치해야 하며, 부패예방담당관은 국민과의 상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관련 정책자문, 행정공무원의 부패혐의 조사, 부패징후의 관찰 및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온 국민이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는 독일

‘독일에서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등 민간에서도 반부

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콘스탄츠 대학에서는 ‘경제 윤리를 위한 독일 네트워크(Deutsche Netzwerk Wirtschaftsethik)’와 ‘경제윤리센터(Zentrum fuer Wirtschaftsethik)’를 세워 독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청렴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반부패전문가 플라이셔(Fleischer) 씨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운영한다면 더 이상 부패는 없을 것”이라며 부패방지 시스템을 통한 예방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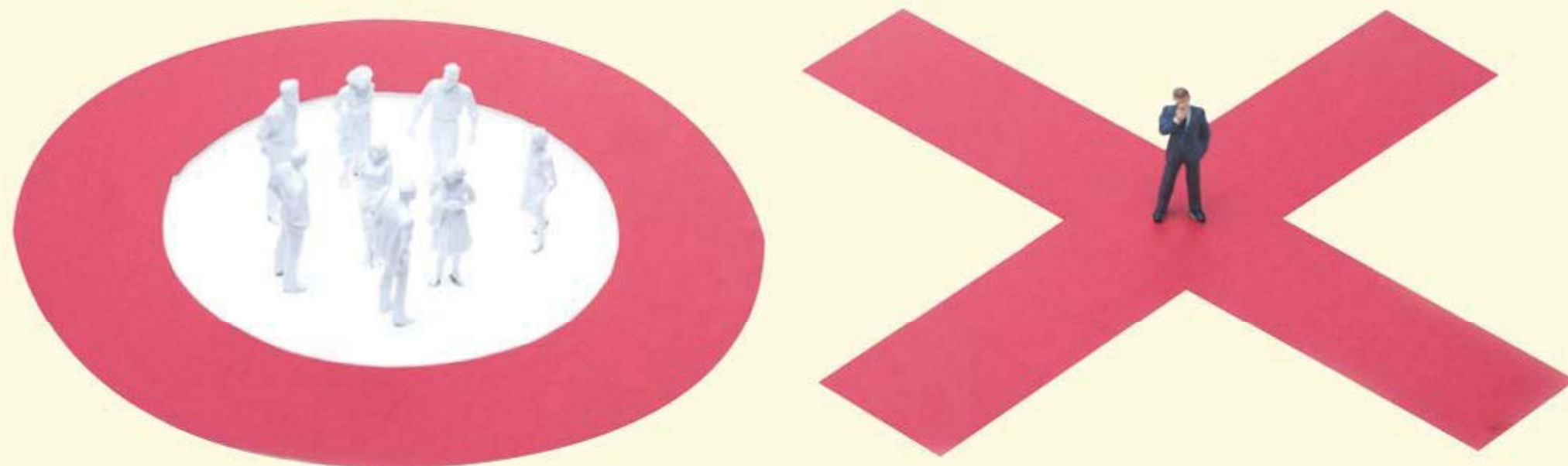
이처럼 독일은 부패방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노력에도 힘쓰고 있다. 독일의 합리적인 규제, 부패예방을 위한 노력은 우리도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또한 독일의 부패방지를 위한 철저한 노력을 본받아 우리나라 역시 청렴국가로 다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정답선정에 혼란을 초래한 문제,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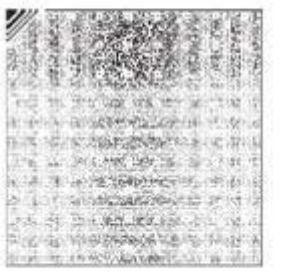
제51회 사법시험, 한 문제 오류로 일부 불합격자 추가 합격

2009년 2월 18일 박씨는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응시했다. 안타깝게도 결과는 낙방. 알고 보니 그의 점수는 올해의 합격 최저점수인 총점 262.52점에서 고작 2.96점 부족한 259.56점이었다. 그런데 그는 시험문제에서 도저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형법 한 문제를 발견했다. 결국 그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8명의 응시생들과 함께 “해당 문제에 대해 한 개만의 정답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사법시험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상대로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과연 어떠했을까.



사람 아닌 동물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가 법적으로 가능할까

먼저, OX 퀴즈를 하나 드린다.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 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자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형법」제21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침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이 문제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법적 주체에서 제외되는 동물인 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답은, ‘정당방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로 요약되겠다. 바로 이 문제가 올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지문 형식으로 출제되었다. 문제의 정확한 내용은 이랬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여기에 달린 문항은 모두 5가지로, 위 OX 퀴즈가 세 번째 지문 ‘ㄷ’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문 ‘ㄷ’로 ‘이웃집 사람의 사주를 받은 맹견이 달려 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가 출제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ㄷ’ 지문인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 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자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는가?’와의 내용과 비슷해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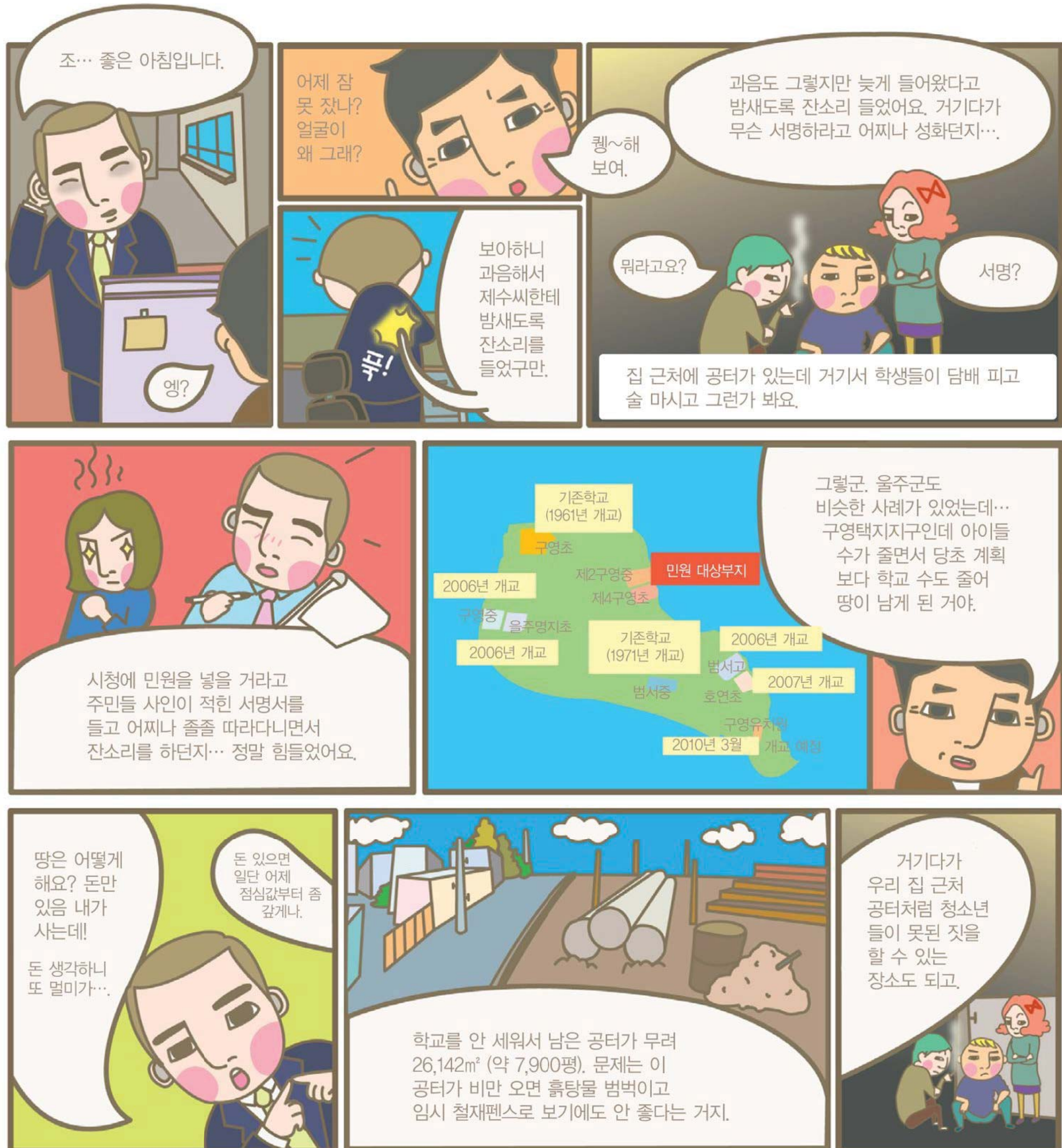
이에 박씨는 동물의 침해는 ‘사육주의 사주에 의한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일부 법학자들의 견해와 더불어 ‘사육관리자의 과실에 의하여 동물이 타인에게 침해를 가할 때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36회 사법시험 기출문제가 있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사주 내지 과실에 의한 경우 모두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또 다른 일부 법학자들의 견해 또한 존재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즉, “‘ㄷ’과 ‘ㄷ’ 지문처럼 양측 학설의 입장을 담고 있는 지문을 모두 제시하면서 그 중 한쪽 견해에 따른 지문만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출제의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 객관성을 상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복수정답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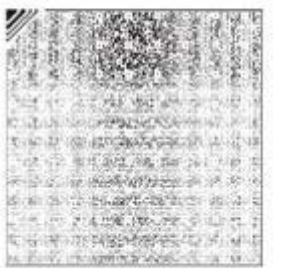
국민권익위,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객관식으로 부적합 하다 판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명쾌했다. 선택형 객관식 문제는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출제하여야 하는데, 지문 ‘ㄷ’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O와 X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상반되는 학설이나 견해들이 사실상 혼재해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출제자의 주관적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서의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공교롭게도 해당문제의 점수는 3점. 이로써 박씨를 포함하여 기존의 1차합격자 2,309명의 10%가 넘는 추가합격자 275명이 구제를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내년 6월과 2011년 6월까지 제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새롭게 주어졌다. 🌈







국민고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해드립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에 문을 두드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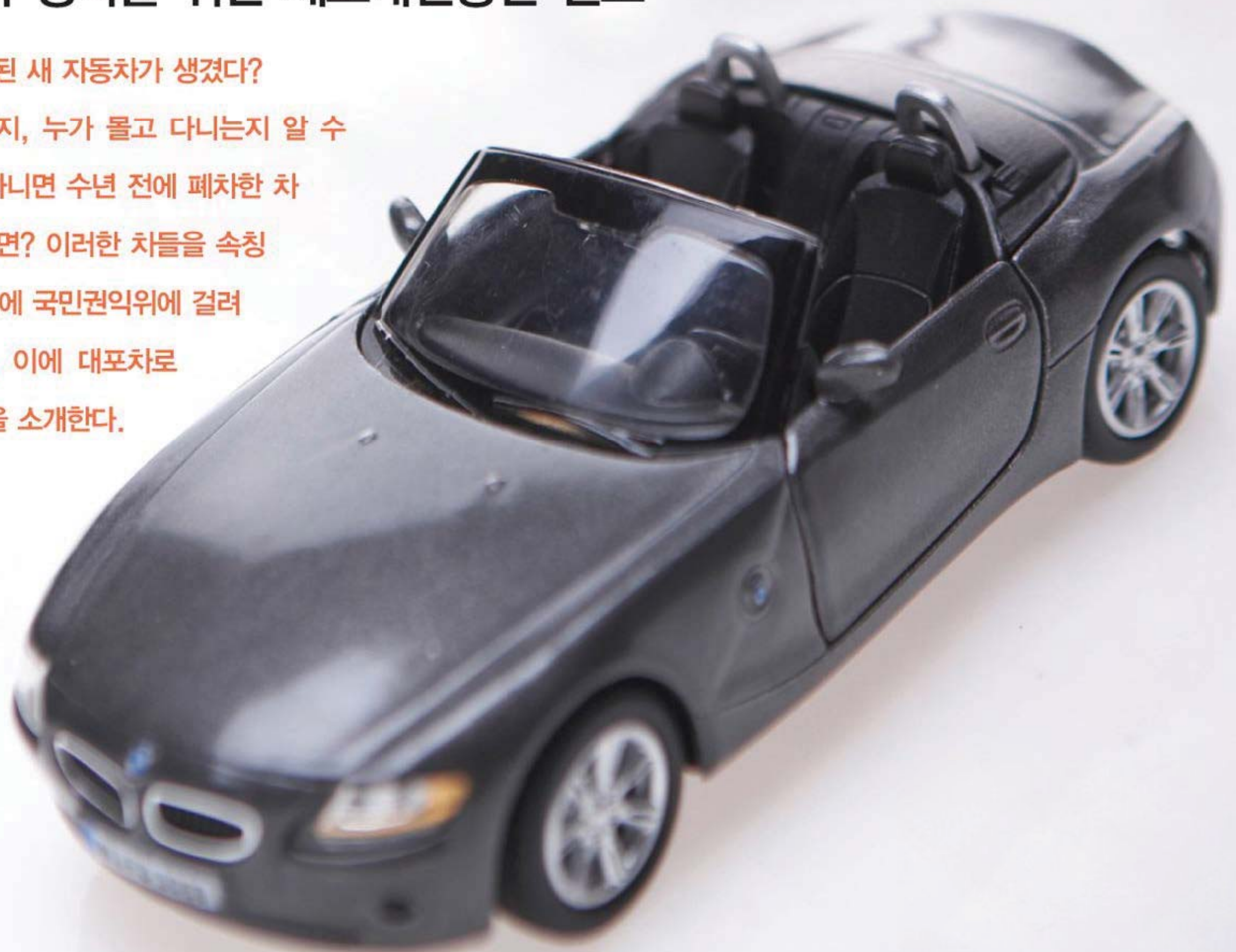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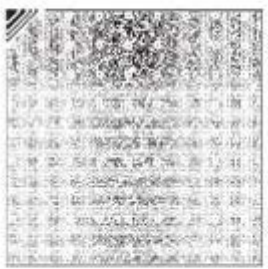
서민 두 번 울리는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무적차량), 이제 그만!

국민권익위원회,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권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 자동차가 생겼다?
하지만 정작 그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몰고 다니는지 알 수
없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아니면 수년 전에 폐차한 차
때문에 고지서가 계속 집으로 날아온다면? 이러한 차들을 속칭
'대포차'라 부르는데, 대포차 피해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걸려
오는 민원전화의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뺑소니 사고 피해사례 ①

“네? 제가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요?”

충남 천안에 사는 A는 어느 날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알고 보니 3년 전에 팔았던 자동차가 사고를 냈는데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A가 조사를 받게 된 것. 그동안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아왔다. 결국 두 달이 지난 후에야 해당 자동차를 수배해 운전자를 잡아냈다.



자동차 말소 등록 피해사례 ②

“제발 차 좀 없애주세요오오~”

경기도 김포에 사는 K는 지난 90년도 중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사용하던 차를 폐차했다. 하지만 3년 뒤 귀국하고 보니, 폐차시킨 차의 기록말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속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있었다. 당시 폐차 업무를 대행했던 폐차장도 없어진 지 오래였다. 그렇게 K는 억울하게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여기에 주차위반 133건에 해당하는 벌금 540만 원까지 더해졌다. 이에 K는 관계기관에 자동차 등록을 말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압류 등록된 자동차는 말소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대포차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다. 올해 6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를 파악한 결과, 6개월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가 44만 대, 6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도 57만 대에 달했다. 그리고 이들 중 50만여 대가 대포차로 추정된다.

대포차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94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명의도용, 양도담보, 교통사고 책임전가 등 대포차로 인한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그중 가장 많은 민원 유형은 ‘과태료 부당 부담’인데, 원래 차량 소유자가 파산, 혹은 대출을 받기 위해 차를 팔아야만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태료를 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더하다. 특히 대포차는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포차 해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 예방이 어렵다는 것. 대포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벌금을 물리고 난 후에나 발견

이 가능하다.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기존의 대포차를 빨리 없애고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경찰이 단속하여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면허정지까지 면허 벌점을 부과 ▲공과금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적발 시 시·군·구에서 공매처분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위반 자동차의 일제 정리지침 마련 및 미이행자 형사처벌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하는 자동차 대수를 사업장의 규모에 비례하여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260여 기관에 각각 권고했다.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팔 때 명의 이전을 꼼꼼히 하고, 폐차시킬 때는 말소 등록을 철저히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본인의 명의로 된 차가 대포차로 의심되는 경우 시청이나 구청, 경찰서로 연락하면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태균 조사관님께

안녕하세요. 어려움에 처한 우리 부부를 위해 애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4·19 혁명 때 입은 부상으로 말과 행동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광주광역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근처에 병원이 들어서면서 응급실 진입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집을 헐어야지 만 그 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병원 측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협상을 제의했고 우리도 여생을 다른 곳에서 보내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병원과 협상에 들어갔지요.

하지만 협상을 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청에서 병원 응급진입로에 소방도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굳이 진입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 줄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역시나 병원은 진입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며 협상을 중단하였고, 구청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현재 아무런 수입 없이 연금과 교회의 도움으로 근근이 살아온 처지라 병원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가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소방도로 사업을 중단하고 병원의 진입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민원을 넣었지요. 하지만 소방도로 사업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며 우리 부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섭섭하던지요.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그때는 정말 외로웠고 여생이 돈 문제로 힘들어질 것 같아 너무 서글펐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남겨준 국민권익위원회

하지만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란 곳을 알게 되었거든요. 국민권익위는 우리 부부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곳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6월 4일,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우리의 민원이 접수되자 김태균 조사관님이 일주일에 몇 번씩 집에 전화해서 민원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광주에 오셨지요. 광주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왜 병원과 협상을 해야 하는지 등 우리 부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처음에 구청직원은 이런 이야기까지 들을 필요가 있냐며 난감해했지만 조사관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자”며 구청직원을 설득했고 우리는 네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구청직원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주셨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사관님은 직접 구청으로 가서 소방도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구청 측은 소방도로 설치 예산이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 부담을 안더라도 올해 안에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병원이 설립되면서 주변이 많이 정리되어 굳이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기에 조사관님은 이를 근거로 소방도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했고 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개인의 일기기에 묻혀버릴 수도 있는 일을 국민권익위는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권리를 찾아주었고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와 같은 민원이 수없이 많을 텐데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모습을 보며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사관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충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광주광역시 양명자(가명) 올림

고 마 워 요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으로 민원을 해결하셨던 분들의 가슴 따뜻한 사연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우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신관 홍보담당관실 <국민권익> 담당자 앞 e-mail : soljy@acrc.go.kr

通

국민
생활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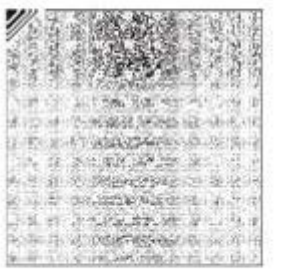
• 기분
좋은
만남

대화는 민원인 웃음을 찾아주는 비결

도시수자원민원과 김태균 조사관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잘 모르겠다면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 김태균 조사관을 보면 답이 보인다. 계획성, 차분함, 조사 능력 그리고 인내심까지. 그는 민원인과 대화를 시도하면 사건해결은 물론, 민원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건해결만큼이나 민원인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도시수자원민원과에 근무하는 김태균 조사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통합 이전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총무과에 입사했다. 그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취업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기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딱히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고충처리위원회에 입사할 당시만 해도 어떤 포부를 갖고 입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큰 사명감이 없었는데 7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때마침 청와대 민원담당부서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했지만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2006년부터 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실에서 일하게 된다. 그리고 2008년 국민권익위로 복귀하여 지금은 도시수자원민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귀를 열고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

조사관으로 활동한 지 1년이 조금 넘자 멋있게만 보였던 일이 조금씩 스트레스와 고민으로 다가왔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일처리 과정보다 민원인의 불평·불만이였다.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것에 대한 불만은 전부 저에게 향하고 그동안의 고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내 능력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다잡죠.”

때로는 힘들지만 그가 이 일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민원인의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를 찾는 사람들은 주변의 무관심으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초반에 대화를 시도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그는 조사관으로서 갖춰야 할 첫 덕목으로 ‘인내심’을 꼽는다. 민원인이 아무리 화내더라도 인내를 갖고 속마음까지 털어놓도록 유도하는 것이 원만한 사건해결의 첫걸음이란 것이다. 지난 7월 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의 이런 신념이 빛을 발했다.

이 민원은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민원인과 소방도로계획을 추진하려는 구청, 응급실 진입로를 만들려는 병원이 얹히고설킨 민원이었다. 민원인의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실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민원인에게 협상을 제의했고, 협상 도중 구청에서 소방도로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소방도로와 응급실 진입로가 겹친다는 것. 이에 병원은 구청 측과 협상하라며 민원인과의 협상을 중단했고 민원인은 구청에 소방도로 설치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민원을 신청했다.

“이 민원인은 몸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연금과 교회의 지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구정보다는 병원 측과 협상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구청 측을 설득해서 소방도로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동 구청도 소방도로 설치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부담이었거든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인내심’이었다. 구청 직원과 민원인을 함께 만나 민원인의 사연을 들었는데 처음에 구청 직원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냐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조사관이 한번 들어보라며 설득했고 네 시간의 기나긴 이야기는 구청측에서 소방도로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구청이 계획을 취소하자 민원인이 내 손을 꼭 잡고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사건 해결보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민원인의 미소가 자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김태균 조사관. 민원인의 미소가 있는 한 그는 언제까지고 국민권익위의 문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리는 민원인을 향해 말할 것이다. “마음 편히 말씀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





신용과 청렴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되다

4회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신용보증기금

KODIT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자본주의 사회에는 부정부패의 덫이 곳곳에 있다. 돈을 다루는 금융업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여기,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활동으로 4회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금융기관이 있으니 바로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신용보증기금'이다. 낯설과 씨실처럼 신용과 청렴이 촘촘하게 엮인 신용보증기금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공심(公心) 경영, 믿음을 낳다

지난 11월 1일, 미국의 거대 중소기업전문 대출은행인 CIT 그룹이 파산했다. 미국 내 백만여 개의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던 CIT 그룹의 파산은 역사상 다섯 번째 규모였고, 미국 서민 경제에 거센 찬바람을 일으켰다. 일본도 작년 하반기에 닥친 세계 경제위기로 좀처럼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중소기업대출 상황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역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금난이라는 매서운 칼바람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중소기업들에 큰 힘이 되어주는 곳이 있으니 바로 '신용보증기금'이다.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창립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보증을 서주며 서민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오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고객과의 신용. 서로의 믿음이 쌓고 쌓이면 서민 경제가 튼튼해진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공심(公心)'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공심(公心)'은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이사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경영지침으로, 청렴·도덕성·윤리경영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모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안택수 이사장의 강력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반부패·청렴경영 및 투명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모두가 함께 하는 윤리경영

작년 신용보증기금의 청렴도 지수는 9.14점으로 4회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KODIT 현장, 임직원행동강령, 내부공익신고제도, 임원 직무청렴계약 등의 내부규정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의 노력이



1. 청렴한 신용보증기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CS지원부. 왼쪽부터 강상훈 팀장, 홍진철 과장, 김한나 대리, 문형찬 대리, 양경훈 차장 2. CS교육 자료에 대해 검토하는 홍진철 과장과 김한나 대리 3. 취임사에서 공심 경영을 강조하는 안택수 이사장 4. 신용보증기금의 청렴함의 근원인 윤리·CS경영위원회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임직원행동강령과 임원직무청렴계약에는 계약을 비롯한 직무수행·특혜·부당 요구·인사·금품 수수·청탁 등 부패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하게 했다.

또한 작년부터 '자체 윤리수준 평가시스템'과 '부패영향 자율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윤리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최근 자체적으로 윤리수준을 측정한 결과 윤리경영 도입, 제도화, 정착 및 체계화, 명성 유지의 윤리 4단계 중 3단계인 '윤리경영 정착 및 체계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윤리경영 정착 및 체계화 단계는 윤리경영 감시 시스템과 실천수준의 평가가 잘 이뤄지고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 단계다. 이는 직원들이 언제라도 윤리문제를 상담할 수 있고 내부고발 창구로도 이용하도록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인 '참소리'가 있기



5

5. 4회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된 신용보증기금 6. 윤리·CS 경영위원회의 회의 모습
7. 한희석 부장과 함께 업무회의를 하는 CS지원부 직원들



6



7

에 가능했다.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은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 윤리수준 평가'의 관련 지표를 기존의 65개에서 190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07년에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기도 했다.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UN에서 제정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행동규범으로,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8월 UN Global Compact의 10대원칙을 이행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과 반부패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있는데, 자발적 윤리경영 학습 동아리인 '윤경포럼'의 회원이 2007년 9명에서 2009년 현재 총 52명으로 증가한 것만 봐도 그 성과를 알 수 있다. '윤경포럼'은 '윤리경영 관련 사례수집 및 정보공유', 'ON/OFF line 토론회' 등 신용보증기금의 윤리경영 발전을 위한 주춧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청렴교육을 펼치다

지금의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하는 부분은 전국에 퍼져 있는 영업점 직원에 대한 교육이다. 이를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E-CS(Ethics & Customer Satisfaction)

클리닉'이다. 대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4년 처음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윤리경영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사내강사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하는 방문 클리닉이 가장 효과가 크다. 올해에는 77곳의 영업점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효과를 인정받아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서 대외 클리닉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05년에는 기획예산처 주관 '공공기관 혁신수준 진단' 결과 212개 공공기관 혁신 사례 중 '7대 혁신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영업점의 신규, 증액 보증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이 CS-Call'도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한 몫했다. 보증서를 발급한 즉시 고객센터 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직원의 친절성, 업무처리 신속성, 청렴성을 평가했으며, 매월 평가결과를 발표하여 영업점 및 직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올해 9월까지의 분석 결과, 98.79점을 기록해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가 계속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한 기업문화로 국민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신용보증기금,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추운 겨울바람에도 꺾여없는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경조사, 직무관련자에게 알리지 마세요!



K 시청의 정책개발실 김갑돌 국장.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는 평소 청탁이나 뇌물을 멀리하였고,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였다. 심지어 가족과 친지들의 청탁조차도 한마디로 거절해 ‘판관 포청천’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특히 늘 ‘청렴함’을 강조하며 직원들에게 청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갑돌 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청사가 발각 뒤집혔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그였기에 충격은 더 할 나위 없이 컸고, 모두 “설마 김갑돌 국장님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갑돌 국장 손자의 돌잔치를 앞두고 직원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초대장을 올린 것이다. 일일이 찾아가 이야기하기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청 홈페이지는 직무 관련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곳으로써 시청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시한 것은 사실상 이들에게 경조사를 알린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다. 그는 소속 직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트라넷(내부통신망)을 이용했어야 했다.

결국 김갑돌 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① 친족에 대한 통지
- ②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③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④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感, 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코끝 시리도록 추운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겨울철, ‘나눔’이라는 말보다 가슴 따뜻한 말이 또 있을까요?

마음을 열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온기가 되는 털목도리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따스함을 선물하세요.

마음을 나누면 또 다른 행복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시린 겨울 마음을 나누면 한결 따뜻해집니다.



36	세상사는 풍경
38	여행의 재발견
42	문화로 보는 세상
44	돈버는 방법
46	생활법률110

感

세상
사는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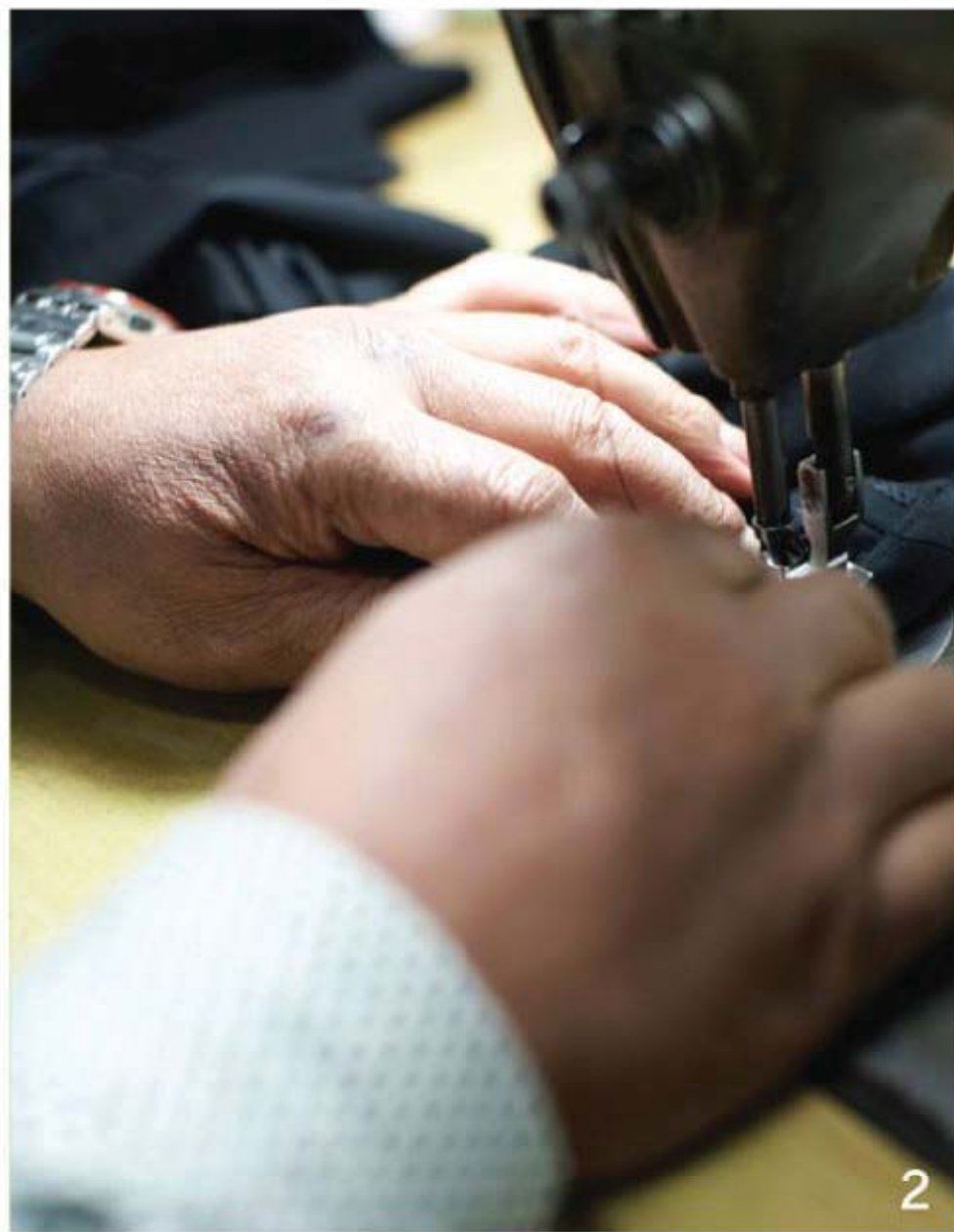
ACB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꺾름밭이 세상을
한 땀, 한 땀 꺾매다!

옷 수선 봉사로 행복을 재단하는 최연승 씨

봉사와 나눔 앞에 우리는 '돈이 있어야 남도 돕지'라고 변명을 하곤 한다. 하지만 평생 떡볶이를 팔아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할머니나 전셋 집에 살면서 매주 독거노인을 위해 점심을 대접하는 부부 등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을 보면, 그들 대부분이 돈이 많아서 이웃을 돕는 것은 아니다. 양재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최연승 씨도 마찬가지다. 30년 동안 남을 위해 산 그의 재봉틀은 기온이 떨어지면 더욱 바빠진다. 어느 새 헌옷은 새 옷이 되고, 그 새 옷은 훈훈한 사랑이 된다.

글 — 강태성
사진 — 박성희



1. 평생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말하는 최연승 씨. 2. 사시사철 돌아가는 최연승 씨의 재봉틀 속엔 사랑이 담겨 있다. 3. 뜯고 다시 재단할 때 가장 필요한 면도칼은 최연승 씨에겐 더 할 나위 없는 소중한 친구란다.

서울 양재동 삼호세탁소 10m² 남짓한 공간에서는 설 새 없이 재봉틀이 돌아간다.

“드르륵~ 드르륵~” 밤낮으로 최연승 씨는 헌 옷을 뜯고 다시 박는 일을 재차 반복한다.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아프련만 그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미소를 짓는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가 왜 옷 수선봉사로 유명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사실, 세탁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봉사와 나눔에 대한 그의 열정을 십분 느낄 수 있다. 비좁은 공간에는 비단 손님들의 옷가지뿐만 아니라 헌 옷들이 가득하다. 그에게 “저 많은 걸 언제 다 하세요?”라고 물으니, 그는 “따뜻해질 때까지요”라고 답한다. 아마도 ‘새 옷으로 따뜻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까지’ 라는 말일 것이다.

나눔을 통해 행복을 느껴요!

그런 그는 세탁소를 개업한 이후 19년째 주변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헌 옷을 수선해서 노인복지시설 등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40여 년 동안 홀트아동복지회에도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으며, 2003년 수해와 2006년 태풍 쓰나미로 살길이 막막해진 이재민을 위해 중형 트럭 다섯 대 분량의 옷을 기증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도 트럭 두 대에 옷을 가득 싣고 보육원과 양로원을 찾았다.

그야말로 신문기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미담 사례인데, 과연 어떤 계기가 그를 봉사의 길로 인도한 것일까? 그는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알지”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있을 터.

사실 그는 지체장애 3급으로 다리가 불편하다. 어려서 뽀뽀기를 하다 한쪽 다리를 다쳤는데 당시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60년이 넘게 불편한 다리로 생활하고 있다. 20년 전 인공고관절 수술을 했지만 걸을 때 여전히 불편하다. 그래서 그는 타인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불편한 다리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세상 살기가 좋은데 말이죠. 남을 돕는 게 큰 일이 아니에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 안경과 같은 존재, 바늘에 실을 쉽게 꿰 수 있도록 하는 바늘꿴기와 같은 존재 정도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잊지 않고 이야기해요. 단돈 2만 원이면 우간다 아이들이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그런 그는 오늘도 잔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사철 헌 옷을 수선하느라 바쁘지만 요즘처럼 추운 계절이 오면 재봉틀을 돌리는 일이 더욱더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 자정을 넘기기 일쑤. 아내는 걱정이 앞서지만 함께 돕는 쪽을 택한다.

그렇게 삼호세탁소의 불은 밤 늦도록 꺼지지 않는다. 누가 보면 ‘오지랖이 넓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연승 씨는 “이게 나의 행복인데요”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그 행복을 위해 오늘도 그는 재봉틀을 돌린다. 훗날, ‘사랑의 지팡이’가 되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

感

여행의
재발견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꽃꽃한 선비문화의 고장 밀양

학자와 관리로서 뛰어났던 점필재 김종직

겨울 언저리를 따라 무작정 달려와 닿은 곳은 경남 밀양. 조선왕조 600년, 그 유구한 역사에 튼튼한 뿌리가 되어준 선비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올곧은 선비문화가 정착된 밀양을 원조 양반고장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 싶다. 그래서인지, 밀양에서는 어딜 가나 고풍스러운 서원과 향교, 고택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글 — 정호지(여행작가) 사진 — 박성희

밀양, 무엇이 떠오르는가? ‘양반고장’이라 말하는 이도 있고, 혹자는 ‘아리랑의 고장’이라고도 하며, 장삼이사들은 영화 <밀양> 또는 표충사, 얼음골 등을 읊을지도 모른다. 이 중 밀양 사람들은 무엇보다 ‘원조 양반고장’으로 불리고 싶어 한다. 양반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안동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퇴계 이황 선생 이후 안동이 양반고장이 되었다면, 시기상으로 그의 증조부쯤 되는 점필재 김종직 선생이 몇 대를 먼저 살았으니 이곳을 ‘원조’로 부르는 것이 틀린 말도 아닐 게다. 그래서 밀양에 가면 김종직 선생의 발자취를 밟아보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다.

청백리의 좁이 피어오르는 추원재

첫 번째 풍경은 김종직 선생의 생가인 ‘추원재’이다. 조선 전기 문신이자 학자인 김숙자 즉, 김종직의 아버지가 터를 잡고 김종직 선생도 평생을 보낸 집터이다. 성리학의 생가이니, 영남 사림파에게는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초라하다. 비록 너른 땅 위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건물 한 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의아한 마음이 드는 순간, 동네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영망이지? 지금 공사 중이거든. 시에서 생가를 복원하고 있어. 그리고 뭐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닐까 싶어. 대궐 같으면 청백리라고 할 수 있나! 안 그래?”

그렇다. 어르신 말씀이 옳다. 대궐처럼 잘 꾸며진 집은 걸보기는 좋지만 세월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자꾸만 보수를 하고 고쳐 형태가 바뀔 테니. 향기가 없는 집보다는 다소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집이 좋은 게 아니겠는가. 그는 청렴결백한 관리로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도 대단했다고 한다. 세조와 성종 때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는데 그중 함양군수로 재직했을 때의 일화가 유명하다. 당시 함양군에서는 해마다 임금에게 차(茶)를 바쳐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을에서는 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차를 바치라는 명이 거두어지지 않았고, 백성은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바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본 그는 마침 『삼국사(三國史)』에서 신라 때 당나라에서 차의 종자를 얻어다가 지리산에 심었다는 대목을 읽고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직접 암천(巖川) 북쪽 대밭을 찾아가 차 종자를 찾아냈고, 백성들에게 차밭을 일구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한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그러하였으니,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으리라.

문을 열고 들어서면 추원재라고 쓰여 있는 현판이 있는 건물이 나오고 집 뒤편으로는 그가 말년에 제자들과 토론하고 강학하던 쌍수정이 있다. 뒷산에는 그의 묘소가 있는 성지가 나



1. 김종직 선생이 후학을 가르쳤던 예림서원 2. 김종직 선생의 생가 앞에 있는 선생의 동상과 비문 3. 김종직 선생의 생가 추원재는 생각보다 초라한데, 청백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4. 밀양시립박물관에 전시된 김종직 선생의 책과 유물





온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두 개의 묘비가 있는데, 하나는 온전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하다. 실상은 이렇다. 온전하지 못한 것은 연산군 때 무오사화를 겪으며 부관참시(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나 사람을 관에서 꺼내 극형에 처하던 일)되어 훼손된 것이며, 온전한 것은 중종반정 때 복권되면서 세운 묘비이다.

그렇다면 무오사화는 또 무엇이더냐. 바로 김종직 선생이 세조인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항우가 의제를 살해한 일에 비유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었고, 이를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에 실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그 글을 보고 분노한 연산군은 선생을 부관참시하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화를 입었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정의를 추구하고 의리를 실천하며 올바른 말을 하는 사림(士林)의 수장이었다. 이쯤 되면 예림서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터.

김종직 선생의 학문의 기치가 담긴 예림서원
부북면 후사포리에 있는 예림서원은 생가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다. 조선 명종 때 덕성서원이란 이름으로 처음 지었으나 임진왜란으로 불탔고, 선조 39년에 다시 지어졌다. 인조 12년에는 예림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숙종 6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고종 때 서원철폐령으로 헐렸다가 고종 11년에 강당을 짓고 예림재라 하였으며, 다시 예림서원으로 복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교육공간은 앞에 제사공간은 뒤에 위치한 전학후묘의 배치 형태를 하고 있다.

누각과 출입문을 겸하는 독서루 아래에 있는 오른쪽 문으로 들어서면 누각 앞마당에 열십자 형태로 돌을 깔아 만든 길이 있고, 그 사이로 잔디가 펼쳐져 있다. 또한, 축대를 쌓아 생활공간과 분리했는데 특이하게 생활공간인 돈선재와 직방재에는 모두 단청이 되어 있다. 몇 걸음 옮기면 다시 낮은 기단 위에 정면 6칸짜리 강당인 구영당이 버티고 서 있다. 구영당에는 예림서원이라는 현판 외에도 구영당, 일신재 등 다른 많은 현판이 걸려 있으며, 가운데 세 칸은 대청마루로 꾸며졌고 왼쪽 한 칸과 오른쪽 두 칸은 방을 들였다. 이곳은 유생의 교육과 회합, 토론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곳은 김종직 선생의 저서인 『이존록』, 『점필재문집』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어 사료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그렇게 예림서원까지 보고 나면 밀양시립박물관을 찾는 것도 잊지 말자. 그곳에 가면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책과 유물이 있으니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김종직 선생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틀을 이룬 성리학의 본고장이 밀양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김종직 선생이 있었기에 예와 의를 중시여기고 백성에게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선비문화가 자리할 수 있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호국사찰 체험, 표충사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훈련시킨 전통의 호국사찰. 새벽 3시 기상, 조석 예불, 부모은중경 독송 강의, 108배, 발우공양 등을 기본 일정으로 하고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승병의 전통을 잇는 호국무예 18기 체험학습, 지역 승마장과 연계한 승마체험 등도 있다. 문화체험으로 탁본이나 약초 배우기 등 '내게 맞는 공부'와 공동체 놀이도 있다. 사명대사 탄생지 유적, 표충비, 승병 훈련장이었던 사자평을 순례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문의 055-352-1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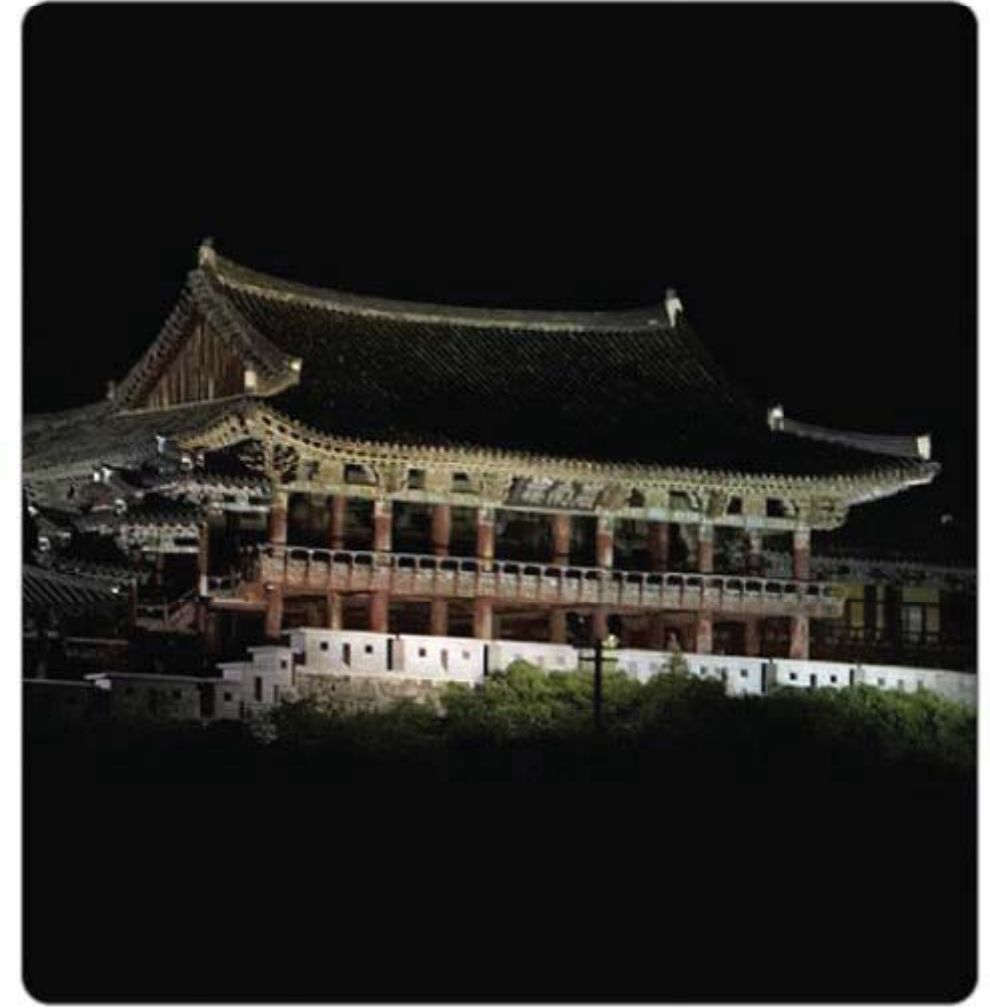


한옥의 美, 밀성 손씨 집성촌

밀양 나들목에서 나와 밀양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면 기와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밀성 손씨 집성촌이 나온다. 짙은 아파트나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밀양 시내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수백 년 전의 옛스러움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 집성촌에는 현재 20채가량의 한옥이 남아 있다. 돌담길에 에워싸인 99칸의 화려한 한옥 구조를 자랑하는 종갓집이 볼거리로는 단연 최고다.

밀양으로 떠나는 전통 여행

고풍스러운 서원과 고택이 많아 자연스럽게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진다. 여기에 경상남도에 가면 한 번쯤 먹어봐야 한다는 돼지국밥까지 볼거리와 먹을거리로 가득하다.



밀양의 휴식처, 영남루

영남루는 밀양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진주 축석루, 평양 부벽루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로 보물 제1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변은 가족이나 연인끼리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곳이다. 밀양교 아래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면 불편을 덜 수 있다. 오리보트를 타고 밀양강을 둘러볼 수도 있다. 2인승과 4인승이 있으며 30분에 1만 2천 원이다. 밀양강을 사이에 두고 영남루 맞은편의 잘 꾸며진 둔치공원에서 어른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또 영남루에 오르면 밀양강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문의 영남루 관리사무소 055-359-5590

밀양가는 길

승용차 서울(서해안고속도로) 출발→홍성IC(60분 소요)→홍성 방면 29번국도(우회전)→군청

버스 서울(서해안고속도로) 출발→홍성IC(60분 소요)→홍성 방면 29번국도(우회전)→군청

열차

장항선 이용 홍성역 하차 : 서울(서해안고속도로) 출발→홍성IC(60분 소요)→홍성 방면 29번국도(우회전)→군청(10~15분 소요)

장항선 이용 홍성역 하차 : 서울(서해안고속도로) 출발→홍성IC(60분 소요)→홍성 방면 29번국도(우회전)→군청(10~15분 소요)



하지만 사회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 사채에 시달리던 일남은 조폭들의 사주를 받고 판자촌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는 안과 밖을 연결하는 인물인 동시에 자본이 꿈틀거리
는 도시의 냉혹함을 맛보고 돌아와 점점 더 가족의 소중함
을 깨닫는 인물이다.

이 영화에서 마치 천사와 같이 그려진 인물은 가사 일을
돌보는 초롱이다. 어머니가 부재한 집안에서 초롱은 가사
일을 돌보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어머니와 같은 인물이다.
부산영화제에는 박철웅 감독을 비롯하여 일남 역을 맡은
조한선과 초롱 역을 맡은 유민이 함께했다.

박철웅 감독은 이처럼 다양한 배우들, 다양한 캐릭터들이
공존하는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현실을 돌아보고
자 한다. 가난한 일가의 모습은 도심 속에서 잊혀져버린
장소를 점유하는 사람들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사
라지는 '서민'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을 향한 애정 어린 시
선은 도시의 반대쪽을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
별시사람들>이라는 제목은 의미심장하다. 같은 지역에 살
기에 특별시 사람들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지만 실상은 특
별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갈등을 벌이며 뒤엉
켜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지시하고 있는 <특별시사람들>

계급적인 갈등의 대립을 다루다 보니 다소 상투적인 부분
도 있다. 판자촌 주민들과 용역 깡패들이 맞서는 과정이라
든가, 주민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들은 이러
한 드라마에서 꽤 상투적으로 쓰이는 전개 방식이다. 그러
나 이 상투성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특별시사람들>은 손쉽게 약자의 승리를 강조하거나 약자
이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공동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가족의 모습
을 통해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과 변화를 갈망하는 이
들의 내적인 싸움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춘다. 김갑수 씨가
연기하는 아버지의 선택이 이를 대변해준다. 어머니의 죽
음 앞에서도 싸우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결국 변
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상을 선택한다.

그것은 패배주의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아버지들의 현실적인 선택이
기도 하다. 그 선택을 통해 가족들은 더욱 좋은 미래를
소망하며, 그들끼리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곳이 판자촌이라 불리든, 달동네라 불리든,
현실의 냉혹한 시선을 견딜 만한 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
면 여전히 살아갈 만한 의미를 부여해준다. 그들이 소망
을 기다리는 장소에 비로소 <특별한사람들>의 뜻이 새
겨질 것이다. 🌍

movie info

- 영화 | 특별시사람들 ● 감독 | 박철웅
- 출연 | 조한선(일남), 유민(초롱), 김갑수(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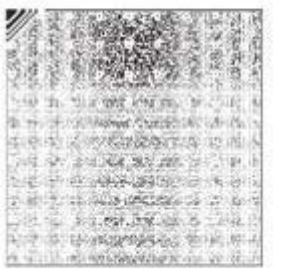
아버지와 함께 철거 대상 지역을 지키며 판자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 남매. 집안의 장남 일남이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조폭들의 사주
를 받고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판자촌으로 들어오고, 아버지는 의
혹의 눈초리로 장남을 바라본다.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로...

보.금.자.리.주.택.의
모든 것



서민들을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한 보금자리주택이 10월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올해 시범지구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1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은 인근 지역의 집값보다 30~35% 정도 낮게 공급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신청자격과 청약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도 도전해 볼까?

보금자리주택은 수요자가 입주시기와 추정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분양된다. 사전예약제란 '현행 청약 시기보다 1년여 전에 예약하는 방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그 기준이 까다로우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가 기본 자격이다.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해서 주택 소유자가 없어야 한다. 과거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안 된다. 금융결제원 사이트(www.ap2you.com)에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를 하면 과거 당첨사실과 분양가 상한제 당첨 여부 조회 등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으로 당첨 가능성을 높여라!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자녀를 둔 가정), 생애 첫 내 집 마련인 경우에는 별도의 주택물량을 특별공급함으로써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내 집 마련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도 실시한다.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①당해지역 거주자이면서 ②무주택 세대주로 ③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없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 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 세 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은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청약자격이 있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일반분양보다 우선하는 '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경우 또 다른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첫 내 집 마련이면서 신혼부부이기도 하고 다자녀가구라면 특별공급 중 생애 최초 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그리고 다자녀가구 주택 중 어느 것에 청약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신혼부부의 청약 자격을 갖췄다면 신혼부부용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애 최초 주택과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물량은 비슷하지만 최초 주택 청약대상자보다 신혼부부 조건을 갖춘 주택 수요자의 수가 더 적은 만큼 신혼부부 특별 공급 경쟁률이 더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무주택자라면 세 자녀 특별공급이 가장 유리하다.

특별공급에 청약했다가 떨어지면 얼른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노부모 부양 가구나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대상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공급에 떨어졌다고 해서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특별공급 대상인가요?

특별공급이 훨씬 유리한 만큼 특별공급 청약자격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우선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청약저축 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세 자녀 요건만 갖춰지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만 20세 미만인 자녀 세 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같은 다자녀인 경우 배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동점자가 나온다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결혼은 했는데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어 고민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한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있어 과거에 직접 집을 산 것이 아니라도 상속, 증여 등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다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안 된다. 하지만 주민등록에 등재된 아버지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 세대주인 아들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반드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력이어야 한다.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여 입증해야 한다. 🌈

●Tip 보금자리주택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사전예약 : <http://myhome.newplus.go.kr>

사전예약 콜센터 : 1600-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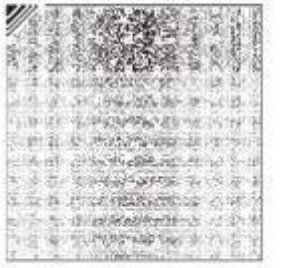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 서울 02-3416-3700,

경기 031-250-8380~6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를 이용한 신용회복 방법

희망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마한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여파일까, 식당을 운영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항상 파리만 날리는 날이 지속됐다. 희망 씨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만 안고 폐업했고,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는 다시 직장을 구하려 노력했지만 이는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이제는 대박의 꿈이 아니라 빚쟁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상황에 놓인 것이다.



Q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A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bad bank: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그리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폐업하여 영업소득자도 아닌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파산 및 면책을 고민해봐야 한다.

Q 개인파산 및 면책 결정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면책결정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게 되는데 사유는 아래와 같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파산선고만 받게 되면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다. 또 경우에 따라 회사에 취직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와 같은 불이익은 모두 소멸되며, 면책이 불허된 경우에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결정을 받으면 모든 불이익은 소멸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①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때
- ③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한 때
- ④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때
- 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때
- ⑦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⑧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⑨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말고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과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사전채무조정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도 연계해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곳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 무료법률구조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대표전화 : 02-532-0132)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더 노력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재오 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부회장 피선

11월 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아시아지역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이 지역 부회장 겸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이번 이재오 위원장의 부회장 겸 지역이사 피선은 이 위원장의 국내·외 지도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민권익보호 수준과 옴부즈만 시스템의 우수성, 그리고 국제 옴부즈만 분야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재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 위원장은 피선 후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확대하고 옴부즈만 업무에 관심을 갖는 미가입 국가나 기관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국의 고충해결 역량 강화를 위해 회원국 간 정책과 기술이 활발히 교환·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을 유도하겠다고 피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09년도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난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전국 1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1회 2009년도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를 발표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기관이 추진한 '청렴교육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타 기관에 확산시키기 위해 '청렴교육 수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수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원 미 보유기관 중에는 ▲최우수상 교통안전공단 ▲우수상 검찰청, 조달청(2개 기관)이 수상했다. 그리고 교육훈련원 보유기관 중에는

▲최우수상 한국철도공사 ▲우수상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2개 기관) ▲장려상 광주교육청, 관세청, 대전교육청(3개 기관) 등 9개 기관이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2기 국민권익 기자단 발대식

지난 10월 30일 '국민권익 제2기 국민권익 기자단 발대식'이 국민권익위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를 만들고자 국민권익 기자단을 선발·활용 중에 있다. 이번에 선발된 블로그 기자단은 국민권익위의 활동상황이나 주요업무 등을 외부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민원 해결, 국가의 반부패 청렴정책과 관련된 글과 사진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활동을 한다. 기사 분야 31명, 웹툰 분야 5명으로 구성된 제2기 블로그 기자단은 3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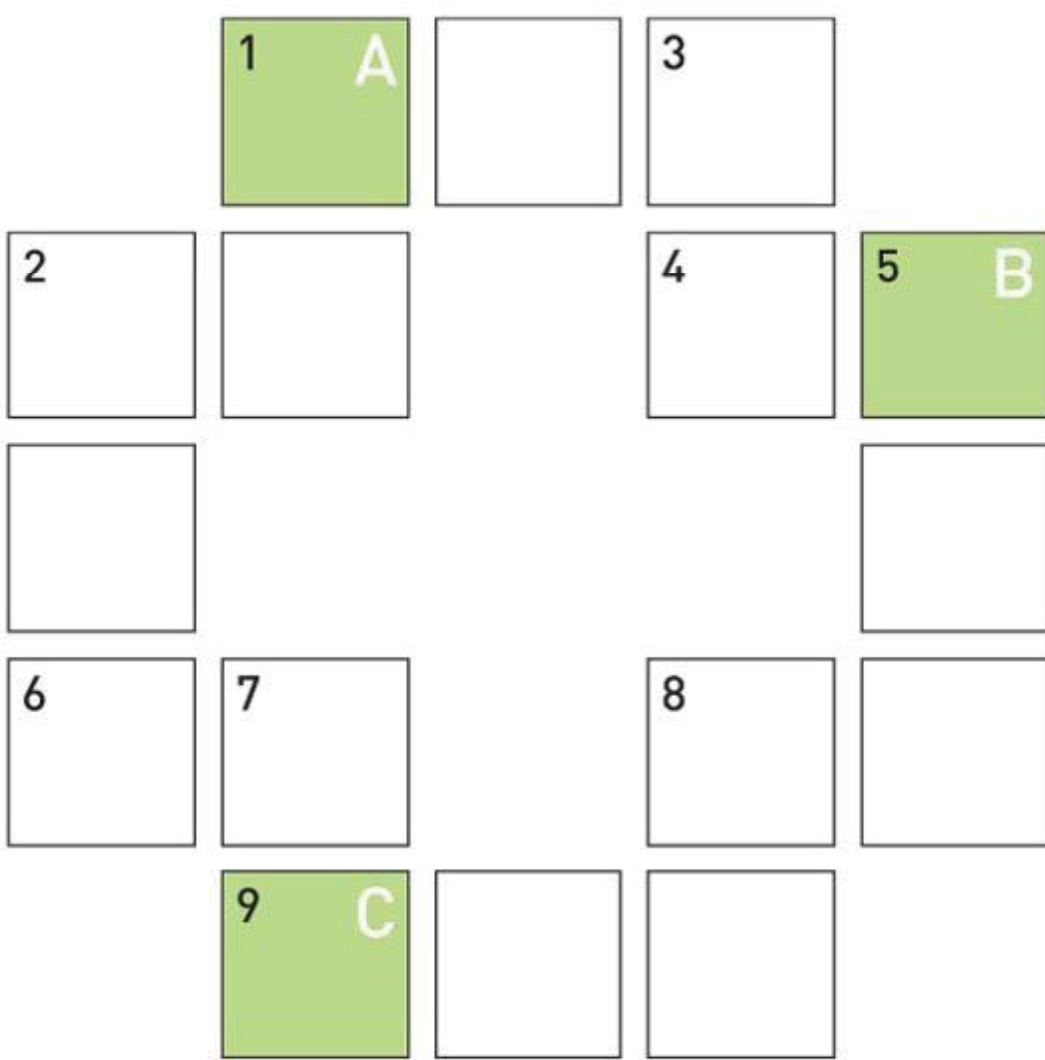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 회의 개최

10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전력공사,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597개 공공기관의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이재오 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되었고,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및 협조사항 등이 전달되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30일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301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각급 행정기관별 반부패대책 강화와 이를 위한 감사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연도 보내고~! 퀴즈도 풀고~!

『국민권익』은 독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12월 31일)



문제〉 가로세로 십자퍼즐, 핵심단어를 찾으세요!

가로 열쇠

- 관리나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 흔히 보통 사람을 군인에 대하여 이르는 말.
- 흠뻑 많아서 넉넉함. ○○ 속의 빈곤.
- 꽃을 심은 동산 혹은 꽃을 파는 가게.
-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주의.
- 미혼 여자의 성 앞에 붙이는 호칭. ○○코리아.
- 타래로 되어 있는 실뭉치.

세로 열쇠

- 예로부터 민중 사이에 불려오던 전통적인 노래.
- 풍속을 측정하는 기계.
- 사진 원판을 인화지에 올려놓고 사진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
- 윗옷과 아래옷이 붙어서 한 벌로 된 옷. 주로 여성복에 많다.
- 1984년에 쓰여진 동화의 주인공으로, 가난과 전쟁으로 얼룩진 불행한 삶이지만 곳곳이 헤쳐 나가며 사는 단발머리 소녀의 이름. ○○ 언니.
- 앞으로 올 때. 과거-현재-○○.

지난 호 퀴즈 정답

반부패

9+10월 퀴즈 당첨자

박희옥, 김수진, 전일택, 조태오, 김휘곤

※ 문제 십자퍼즐을 채운 후 A, B, C에 들어갈 낱말을 조합하신 후 독자엽서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 게재됩니다.

※ 퀴즈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박희옥(인천광역시 부평구)

‘청렴리더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한 세상 만들기’ 기사 중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각 국의 부패척결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Clean World의 의미가 한층 돋보였습니다.

김수진(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 요즘 말이 많은 이슈여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는데 쉽고 재미있는 ‘고충처리 카페’ 만화를 통해서 궁

금증과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전일택(충청북도 충주시)

‘서민이여, 정부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서민을 지원하려해도 이용자가 모르면 무용지물! 저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봤습니다.

조태오(광주광역시 서구)

‘그라민 은행’처럼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서

민의 자립을 돕는 소액대출제도 ‘미소금융’이 있습니다. 친서민 제도들이 더욱 활성화 되어 지속가능한 모델로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김휘곤(전라북도 부안군)

토요일에 재사용과 나눔을 실천하는 독점장터 기사가 인상적입니다. 환경사랑과 함께 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런 나눔 장터가 전국 여러 곳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장터 소식과 정보도 곁들여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독자소리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고충민원은 시원하게, 부패행위는 깨끗하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방방곡곡 행복을 배달하겠습니다!

“딩동!”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복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여 권리를 찾아주고,

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은 국민에게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행복배달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달려겠습니다.

